

# 남·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관한 연구

## Study on Trauma of Male, Female Alcoholics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Jea-Hee Woo(jhwoo@cup.ac.kr)

### 요약

본 연구는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살펴보고, 외상경험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20명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동기 성적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친밀한 사람의 자살, 사망, 질병, 가족분리)의 학대경험이 여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아동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성인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사기, 신체적 방임, 유산)의 학대경험이 남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 여성 알코올 중독자 모두 경제적 곤란의 외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학력과 첫 음주연령이 외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학력,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이 외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고취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알코올중독자 | 외상 | 외상관련 요인 |

### 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amine trauma of male, female alcoholics and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uma and relative influence of trauma to provide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ractic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220 alcoholics. Through this survey, it wa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trauma of male, female alcoholics found to be significant. First, Trauma of sexual abuse, suicide, death, disease, family separation of male on childhood are more than female. While, Trauma of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on childhood an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fraud, physical neglect, miscarriage of female on adulthood are more than male. Second, The education, age of first drinking effect on the trauma of male alcoholics. The education, religion, family history, relapse and insight effect on the trauma of female alcoholic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trauma of male, female alcoholics had been discussed.

■ keyword : | Alcoholics | Trauma | Factors Influencing Trauma |

## I. 서론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2011년을 기준으로 남자 20.7%, 여자 6.1%, 전체 13.4%로 남자의 유병률이 여자에 비하여 3.4배 높다[21].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약 220만~400만을 추정하고 있고 알코올소비량 및 음주 관련 폐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1]. 알코올중독자는 인생의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 경험을 호소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알코올중독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 경험들을 이야기 한다. 구체적인 경험들은 주로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던 사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에게 맞았던 경험, 일 배우는 사장에게 맞은 경험, 성적으로 폭행당한 경험 등이다[1][20]. 어린 시절 외상으로 명명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 성장 이후에도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2]. 이처럼 외상과 알코올중독은 강한 관계가 있고 아동기 외상경험은 음주시작연령 저하와 청소년기 알코올 및 약물남용 문제 발생의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3].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들의 약 30~60%가 외상을 경험하고 PTSD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아동기에 두 번 또는 그 이상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동기에 한 번 또는 부정적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코올중독 발생 가능성이 약 1.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알코올중독은 어린 시기에는 조롱과 냉대, 위협과 벌 및 파면 등의 경험에 의해 생긴 불안정감에서 발생한다고 한다[6]. 그리하여 성인이 된 후에 알코올은 사회적 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므로 알코올로 유도된 기분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의 감정이 활기를 되찾기 때문에 또 다시 알코올을 마시게 된다고 한다[7]. 아동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가졌던 두려움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경우 후에 결핍된 부모의 애정에 대한 만족을 얻고, 복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것이다[8].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성장하면서 우울이나 불안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정신과 진단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물질남용과 같은 문제로 발전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9]. 또한 아동기 학대경

험이 성인기에 음주문제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대처기술이나 반사회적 행동, 심리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외상역동 모델에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세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지향을 변화시켜 왜곡된 인지, 정서가 무기력감이나 낙인과 같은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손상이 죄책감,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약물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설명한다[11]. 이처럼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있어 외상경험은 술을 마시게 되는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연구를 살펴보면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2012)의 알코올중독자의 성장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12]. 우재희(2012)의 신체적, 성적 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에 관한 연구[13], 김연주(2013)의 경험회피를 매개변인으로 한 외상과 알코올중독에 관한 연구[14]가 전부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 자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보다는 가정폭력, 성적 학대 등 특정한 학대와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현재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 내용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들이 어떠한 외상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개입은 교육, 집단프로그램과 상담, 단주모임 등의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입들의 구체적 내용으로 외상경험을 다루어 주어 알코올중독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좀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남녀 알코올중독자의 외상특성을 구분해 봄으로써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상경험 관련한 구체적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감소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외상경험

외상이란 성 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사망, 자연재해, 사고, 전쟁, 테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상실, 지역사회 폭력 등 다양한 외상경험을 일컫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4]. 외상의 유형은 일회적 외상(single-blow trauma)과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natural trauma)과 사람에 의한 외상(man-made trauma)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외상 중 아동, 청소년기 학대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 학대 등을 가리킨다[6].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이 성인기 대인간 외상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16]. 따라서, 발달적 손상으로 인해 연령이 낮을 때 외상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심각한 증상들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7].

### 2. 알코올과 외상경험

알코올중독과 외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상과 약물남용 관계는 성차(gender)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경우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여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청소년들은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 정슬기(2008)의 연구에서는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외상경험 중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기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18] 여성들의 경우 아동기 학대, 신체적 학대 등 학대 경험은 약물 중독 유병률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외상경험이 빠

를수록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알코올 등의 약물을 자가 처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빨라진다[19]. 이처럼 외상경험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며, 중독 회복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원한 알코올중독 남자 환자만을 대상으로 통제집단 없이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동기 신체학대 경험과 알코올중독과의 관계성을 밝혀냈다[14].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알코올 문제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했으며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우울이나 대처로서의 알코올사용과 같은 변인을 밝혀냈다[13]. 추적연구를 통해 성별과 아동기 학대유형에 따른 알코올남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게 있어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장 후 알코올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성 학대 경험과 방임의 경험이 성장 후에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알코올중독자의 구체적인 외상경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2012)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외상경험 중 성장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을 독립변수로 살펴보았는데 방임, 언어폭력, 신체폭력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연구의 대상은 남, 여 비율이 3:1로 남성 알코올중독자 수가 많은 연구였다. 우재희(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알코올중독자들의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을 살펴보았는데 18세 이전 신체적 학대경험이 가장 많았고, 외상경험의 강도 면에서는 18세 이후 지인의 성관계 강요, 18세 이전 타인의 성적 행동 강요, 18세 이전 지인의 성적 행동 강요 순으로 높았다.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내용과 강도는 주로 성적 외상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3]. 김연주(2013)의 연구에서는 남, 여 비율이 2:1인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외상사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건 및 사고 유형 중 가족, 이성 친구, 친한 친구가 사고나 자살로 목숨을 잃은 경험이 11.1%로 높았고, 질병 사건 유형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이나 질병 경험이 1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외상경험은 사건 및 사고 유

형 중 다른 사람의 죽음, 심각한 사고 혹은 성적, 신체적으로 폭력당하는 장면 목격이 8.4%로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 유형으로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매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이 6.7%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성적 폭력 경험 유형은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14].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알코올중독 병원에 입원중인 만 18세 이상의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남, 녀 각각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알코올중독 진단 측정도구에 의거하여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연구대상은 알코올중독 해독기간을 거쳐 금단증상이 없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에 참여시켰다.

####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비확률 표집인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 5개구, 경인 6개시 지역에 소재한 알코올중독병원에 있는 남성 127부, 여성 120부, 총 247부를 설문하여 남, 녀 각 110부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조사도구

##### 3.1 외상

외상경험은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과 외상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22]. 외상경험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았다(1점)', '매우 많이 그랬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다.

##### 3.2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직업, 학력, 종교, 월수입, 의료보장형태를 음주관련 특성으로 첫 음주 연령, 가족력, 최초입원시기, 재발경험, 입원횟수, 음주횟수,

음주량, 병식을 살펴보았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음주관련특성의 하위요인과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 중 연령을 보면 여성은 30대(41.8%)가 남성은 40대(49.1%)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여성의 경우 이혼(47.3%)이 남성은 기혼(56.4%)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여성의 경우 판매, 서비스, 영업직(23.6%)이 남성은 자영업, 사무기술직(33.6%)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여성은 기독교(38.2%)가 남성은 무교(43.6%)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40.9%)이 남성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8.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의료보장형태는 여성(91.8%), 남성(74.5%) 모두 의료보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0)

| 변수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 전체        | 110(100) | 110(100) | 220(100)  |
| 연령   | 29세이하     | 1(0.9)   | 15(13.6) | 16(7.3)   |
|      | 30-39세    | 20(18.2) | 46(41.8) | 66(30.0)  |
|      | 40-49세    | 54(49.1) | 41(37.3) | 95(43.2)  |
|      | 50세이상     | 35(31.8) | 8(7.3)   | 43(19.5)  |
| 결혼상태 | 미혼        | 27(24.5) | 25(22.7) | 52(23.6)  |
|      | 기혼        | 62(56.4) | 29(26.4) | 91(41.4)  |
|      | 이혼        | 14(12.7) | 52(47.3) | 66(30.0)  |
|      | 기타        | 7(6.4)   | 4(3.6)   | 11(5.0)   |
| 직업   | 무직        | 35(31.8) | 12(10.9) | 47(21.5)  |
|      | 판매/서비스/영업 | 17(15.5) | 26(23.6) | 43(19.5)  |
|      | 자영업/사무기술  | 37(33.6) | 9(8.3)   | 46(20.9)  |
|      | 단순직       | 8(7.3)   | 22(20.0) | 30(13.6)  |
|      | 전문/공무원    | 8(7.3)   | 5(4.5)   | 13(5.9)   |
|      | 기타        | 5(4.5)   | 36(32.7) | 41(18.6)  |
| 학력   | 중졸이하      | 13(11.8) | 29(26.4) | 42(19.1)  |
|      | 고졸        | 67(60.9) | 66(60.0) | 133(60.5) |
|      | 전문대/대졸이상  | 30(27.3) | 15(13.6) | 45(20.4)  |

|         |             |          |           |           |
|---------|-------------|----------|-----------|-----------|
| 종교      | 기독교         | 37(33.6) | 42(38.2)  | 79(35.9)  |
|         | 천주교         | 4(3.6)   | 16(14.5)  | 20(9.1)   |
|         | 불교          | 20(18.2) | 13(11.8)  | 33(15.0)  |
|         | 무교          | 48(43.6) | 38(34.5)  | 86(39.1)  |
|         | 기타          | 1(1.0)   | 1(1.0)    | 2(.9)     |
| 월평균 소득  | 100만원미만     | 8(7.3)   | 45(40.9)  | 53(24.1)  |
|         | 100-200만원미만 | 31(28.2) | 35(31.9)  | 66(30.0)  |
|         | 200-300만원미만 | 25(22.7) | 5(4.5)    | 30(13.6)  |
|         | 300-500만원미만 | 15(13.7) | 1(.9)     | 16(7.3)   |
|         | 500만원이상     | 5(4.5)   | 1(.9)     | 6(2.7)    |
| 의료보장 형태 | 의료보험        | 82(74.5) | 101(91.8) | 183(83.2) |
|         | 의료보호        | 19(17.3) | 6(5.5)    | 25(11.3)  |
|         | 일반          | 9(8.2)   | 3(2.7)    | 12(5.5)   |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중 첫 음주 연령을 보면 남성(33.6%), 여성(46.4%) 모두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가족력은 남성의 경우 있다(75.5%), 여성은 없다(71.8%)가 가장 많았다. 최초입원시기는 남성의 경우 31-40세가(51.8%), 여성은 41-50세가(40.0%)가 가장 많았다. 재발경험은 남성(58.2%), 여성(64.5%) 모두 많았다. 입원횟수는 남성은 6-10회(66.4%)가 여성은 1-5회가(72.7%)가 가장 많았다. 음주횟수는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5-6회(67.3%), 여성은 일주일에 3-4회(37.3%)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음주량은 남성은 5-6병(50.9%), 여성은 3-4병(34.6%)이 가장 많았다. 병식은 남성(59.1%), 여성(90.0%)로 많았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n=220)

| 변수      | 구분         | 여성       | 남성       | 전체        |
|---------|------------|----------|----------|-----------|
|         | 전체         | 110(100) | 110(100) | 220(100)  |
| 첫 음주 연령 | 초등(13세)이하  | 2(1.7)   | 32(29.1) | 34(15.4)  |
|         | 중등(14-16세) | 19(17.3) | 15(13.6) | 34(15.5)  |
|         | 고등(17-19세) | 51(46.4) | 37(33.6) | 88(40.0)  |
|         | 20-25세     | 29(26.4) | 18(16.4) | 47(21.4)  |
|         | 26세 이상     | 9(8.2)   | 8(7.3)   | 17(7.7)   |
| 가족력     | 예          | 31(28.2) | 83(75.5) | 114(51.8) |
|         | 아니오        | 79(71.8) | 27(24.5) | 106(48.2) |
| 최초 입원시기 | ~30세       | 9(8.2)   | 43(39.1) | 52(23.6)  |
|         | 31-40세     | 36(32.7) | 57(51.8) | 93(42.3)  |
|         | 41-50세     | 44(40.0) | 7(6.4)   | 51(23.2)  |
|         | 50세 이상     | 21(19.1) | 3(2.7)   | 24(10.9)  |
| 재발 경험   | 예          | 71(64.5) | 64(58.2) | 135(61.4) |
|         | 아니오        | 39(35.5) | 46(41.8) | 85(38.6)  |
| 입원 횟수   | 1-5회       | 80(72.7) | 36(32.7) | 116(52.7) |
|         | 6-10회      | 18(16.4) | 73(66.4) | 91(41.4)  |
|         | 11-15회     | 8(7.3)   | 1(.9)    | 9(4.1)    |
|         | 15회 이상     | 4(3.6)   | 0(0)     | 4(1.8)    |
| 음주 횟수   | 일주일에 1-2회  | 29(26.3) | 6(5.4)   | 35(15.9)  |
|         | 일주일에 3-4회  | 41(37.3) | 18(16.4) | 59(26.8)  |
|         | 일주일에 5-6회  | 20(18.2) | 74(67.3) | 94(42.7)  |
|         | 일주일 내내     | 20(18.2) | 12(10.9) | 32(14.6)  |

|     |       |          |          |          |
|-----|-------|----------|----------|----------|
| 음주량 | 1-2병  | 48(43.6) | 14(12.7) | 62(28.2) |
|     | 3-4병  | 38(34.6) | 34(30.9) | 72(32.7) |
|     | 5-6병  | 19(17.3) | 56(50.9) | 75(34.1) |
|     | 7병 이상 | 5(4.5)   | 6(5.5)   | 11(5.0)  |
|     | 병식    | 인정       | 99(90.0) | 65(59.1) |
|     | 불인정   | 11(10.0) | 45(40.9) | 56(25.5) |

## 2. 알코올중독자의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실태

외상경험은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성인의 학대, 그 외의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경험(배우자 사망 및 외도, 사기 등)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내용을 남성, 여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외상경험 4, 9, 10, 11, 14가 여성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외상경험 1, 2, 3, 5, 6, 7, 8, 12, 13이 남성보다 많았다. 외상경험 15번은 남성, 여성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외상경험 (n=220)

|        | 남성(n=110)    |       | 여성(n=110)    |       |
|--------|--------------|-------|--------------|-------|
|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외상경험1  | 47.3%        | 52.7% | <b>67.3%</b> | 32.7% |
| 외상경험2  | 46.4%        | 53.6% | <b>73.6%</b> | 26.4% |
| 외상경험3  | 8.2%         | 91.8% | <b>52.3%</b> | 47.7% |
| 외상경험4  | <b>8.2%</b>  | 91.8% | 7.3%         | 92.7% |
| 외상경험5  | 17.3%        | 82.7% | <b>37.6%</b> | 62.4% |
| 외상경험6  | 35.5%        | 64.5% | <b>69.1%</b> | 30.9% |
| 외상경험7  | 4.5%         | 95.5% | <b>25.7%</b> | 74.3% |
| 외상경험8  | 61.8%        | 38.2% | <b>76.4%</b> | 23.6% |
| 외상경험9  | <b>30.9%</b> | 69.1% | 18.5%        | 81.5% |
| 외상경험10 | <b>60.9%</b> | 39.1% | 23.6%        | 76.4% |
| 외상경험11 | <b>40.9%</b> | 59.1% | 14.7%        | 85.3% |
| 외상경험12 | 18.2%        | 81.8% | <b>74.5%</b> | 25.5% |
| 외상경험13 | 5.5%         | 94.5% | <b>57.8%</b> | 42.2% |
| 외상경험14 | <b>44.5%</b> | 55.5% | 32.7%        | 67.3% |
| 외상경험15 | 67.3%        | 32.7% | 68.2%        | 31.8% |

- 1) 외상경험1: 아동기신체적학대-어린시절(18세 이전) 누군가로부터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험
- 외상경험2: 아동기정서적학대-어린 시절(18세 이전)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 받았던 경험
- 외상경험3: 아동기성적학대-어린 시절(18세 이전)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면서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경험
- 외상경험4: 아동기성적학대-어린 시절(18세 이전)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며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경험
- 외상경험5: 성인기신체적학대-18세 이후 친밀한 사람(배우자,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
- 외상경험6: 성인기정서적 학대- 18세 이후 친밀한 사람(배우자,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등)으로부터 욕설, 정서적 모욕 등을 받은 경험
- 외상경험7: 성인기성적학대-18세 이후 친밀한 사람(배우자,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은 경험
- 외상경험8: 사기-믿었던 사람(배우자,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
- 외상경험9: 자살-친밀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험

1) 외상경험 내용

- 외상경험10: 사망-친밀한 사람이 (자살 외의 이유로) 사망한 경험
- 외상경험11: 질병-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경험한 경험
- 외상경험12: 신체적방임-신체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 외상경험13: 유산-임신 중절 혹은 유산을 경험한 경험
- 외상경험14: 가족분리-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 남편 혹은 가족과 분리되어야 했던 경험
- 외상경험15: 경제적곤란-예상지 못한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경험

3.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특성, 음주관련 특성 요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인구 사회학적 변인, 음주관련변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표 6]과 같다.

남성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이 외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5]의 모형1의 설명력은 7.9%로 나타났으며 본 모형은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F=3.079, p<.01). 변인 중에서 학력(β=.398, p<.05)이 고졸집단 일수록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주관련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는 설명력이 11.0% 증가했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는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4.581,

p<.001). 음주관련 특성 중 첫 음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201, p<.05) 첫 음주연령이 빠를수록 외상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 특성이 외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6]의 모형1의 설명력은 15.2%로 나타났으며 본 모형은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F=4.266, p<.01). 변인 중에서 학력(β=-.235, p<.05)과 종교(β=.189, p<.05)가 외상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은 고졸일수록, 종교는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외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음주관련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는 설명력이 26.1% 증가했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는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5.156, p<.001). 음주관련 특성 중 가족력(β=.214, p<.05), 재발경험(β=-.205, p<.05), 병식(β=-.259, p<.05) 이 외상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력은 있는 여성이, 재발경험은 있는 여성일수록, 병식은 인정하는 여성이 외상경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비해 모형 2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학력, 종교가 외상경험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4.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 1       |         |         |         |       |         |         |         |         |         |        |        |        |         |         |       |    |
| 2  | .460**  | 1       |         |         |       |         |         |         |         |         |        |        |        |         |         |       |    |
| 3  | -.152*  | -.013   | 1       |         |       |         |         |         |         |         |        |        |        |         |         |       |    |
| 4  | -.242** | -.038   | .077    | 1       |       |         |         |         |         |         |        |        |        |         |         |       |    |
| 5  | .020    | -.008   | .060    | -.057   | 1     |         |         |         |         |         |        |        |        |         |         |       |    |
| 6  | .141*   | .411**  | -.456** | .056    | -.089 | 1       |         |         |         |         |        |        |        |         |         |       |    |
| 7  | -.088   | .032    | .210**  | -.065   | .088  | -.108   | 1       |         |         |         |        |        |        |         |         |       |    |
| 8  | .425**  | .230**  | .004    | -.115   | -.041 | .018    | -.038   | 1       |         |         |        |        |        |         |         |       |    |
| 9  | -.149*  | -.188*  | .141*   | -.278** | .122  | -.243** | .223**  | -.130   | 1       |         |        |        |        |         |         |       |    |
| 10 | .586**  | .354**  | -.047   | -.004   | -.047 | .136*   | -.198** | .390**  | -.396** | 1       |        |        |        |         |         |       |    |
| 11 | .035    | -.111   | -.163*  | .007    | .053  | .061    | .068    | .040    | .169*   | -.180** | 1      |        |        |         |         |       |    |
| 12 | .070    | -.112   | -.053   | -.227** | -.038 | -.039   | .245**  | .002    | .375**  | -.369** | .222** | 1      |        |         |         |       |    |
| 13 | -.177*  | -.119   | .003    | .016    | -.029 | -.020   | .048    | -.184** | .307**  | -.277** | .106   | .203** | 1      |         |         |       |    |
| 14 | -.233** | -.222** | .080    | -.075   | .007  | -.201** | .243**  | -.203** | .416**  | -.404** | .037   | .329** | .415** | 1       |         |       |    |
| 15 | .164*   | .173*   | -.050   | .082    | -.083 | .139*   | -.040   | .107    | -.188*  | .180**  | .394** | -.129  | -.008  | -.211** | 1       |       |    |
| 16 | -.223** | -.271** | .119    | -.009   | .123  | -.179** | .132    | -.289** | .395**  | -.353** | -.126  | .198** | .183*  | .316**  | -.359** | 1     |    |
| 17 | -.112   | -.041   | .126    | .058    | -.142 | -.033   | .014    | -.246** | .148*   | -.065   | -.069  | -.095  | .185*  | .129    | -.145*  | .133* | 1  |

\* p(0.05 \*\* p(0.01

주: 1.연령, 2.결혼, 3.직업, 4.학력, 5.종교, 6.월소득, 7.의료보장, 8.첫음주연령, 9.가족력, 10. 첫입원연령, 11.재발경험, 12.입원횟수, 13.음주횟수, 14. 음주량, 15.병식, 16.외상경험빈도, 17.외상경험강도

표 5.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예측 변인 (n=220)

|                       | 모형1     |         | 모형2      |         |
|-----------------------|---------|---------|----------|---------|
|                       | B       | $\beta$ | B        | $\beta$ |
| 연령                    | 2.810   |         | 1.315    |         |
| 결혼 †                  | 0.035   | 0.123   | 0.062    | 0.222   |
| 직업 †                  | -0.990  | -0.208  | -1.199   | -0.252  |
| 학력 †                  | 0.059   | 0.012   | 0.443    | 0.087   |
| 종교 †                  | 2.107*  | 0.398   | 2.435**  | 0.459   |
| 월수입                   | -0.451  | -0.095  | -0.396   | -0.083  |
| 의료보장 †                | -0.046  | -0.033  | 0.019    | 0.014   |
|                       | 0.270   | 0.050   | 0.352    | 0.065   |
| 첫음주연령                 |         |         | -0.067*  | -0.201  |
| 가족력 †                 |         |         | 1.037    | 0.198   |
| 최초입원시기                |         |         | 0.099    | 0.036   |
| 재발경험 †                |         |         | -0.726   | -0.147  |
| 입원횟수                  |         |         | 0.515    | 0.170   |
| 음주횟수                  |         |         | -0.065   | -0.029  |
| 음주량                   |         |         | 0.366    | 0.135   |
| 병식 †                  |         |         | -1.033   | -0.131  |
| R <sup>2</sup>        | 0.079   |         | 0.190    |         |
| adj. R <sup>2</sup>   | 0.073   |         | 0.174    |         |
| F                     | 3.079** |         | 4.581*** |         |
| R <sup>2</sup> change | -       |         | 0.110    |         |

\* p<.05 \*\* p<.01 \*\*\* p<.001  
 주) †는 dummy변수 처리한 것임. (결혼:기혼, 직업:있음, 학력:고졸, 종교:있음, 의료보장:보험, 가족력:있음, 재발경험:있음, 병식:인정이 기준집단 임.)

표 6.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예측 변인 (n=220)

|                       | 모형1      |        | 모형2      |        |
|-----------------------|----------|--------|----------|--------|
|                       | B        | 베타     | B        | 베타     |
| 연령                    | 7.490    |        | 6.409    |        |
| 결혼 †                  | -0.027   | -0.098 | 0.044    | 0.162  |
| 직업 †                  | -1.014   | -0.225 | -0.893   | -0.198 |
| 학력 †                  | 0.711    | 0.111  | 0.336    | 0.053  |
| 종교 †                  | -1.361 * | -0.235 | 0.277    | 0.048  |
| 월수입                   | 0.790 *  | 0.189  | 0.663    | 0.159  |
| 의료보장 †                | 0.057    | 0.055  | 0.077    | 0.074  |
|                       | -0.091   | -0.013 | -0.517   | -0.071 |
| 첫음주연령                 |          |        | -0.065   | -0.229 |
| 가족력 †                 |          |        | 0.990*   | 0.214  |
| 최초입원시기                |          |        | -0.415   | -0.146 |
| 재발경험 †                |          |        | -0.828 * | -0.205 |
| 입원횟수                  |          |        | -0.313   | -0.076 |
| 음주횟수                  |          |        | 0.239    | 0.082  |
| 음주량                   |          |        | 0.115    | 0.045  |
| 병식 †                  |          |        | -1.047 * | -0.259 |
| R <sup>2</sup>        | 0.152    |        | 0.413    |        |
| adj. R <sup>2</sup>   | 0.135    |        | 0.312    |        |
| F                     | 4.266**  |        | 5.156*** |        |
| R <sup>2</sup> change | -        |        | 0.261    |        |

\* p<.05 \*\* p<.01 \*\*\* p<.001  
 주) †는 dummy변수 처리한 것임. (결혼:기혼, 직업:있음, 학력:고졸, 종교:있음, 의료보장:보험, 가족력:있음, 재발경험:있음, 병식:인정이 기준집단 임.)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살펴보고 외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동기 성적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경험(친밀한 사람의 자살, 사망, 질병, 가족분리)의 학대경험이 여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아동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성인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경험(사기, 신체적 방임, 유산)의 학대경험이 남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경제적 곤란은 남성, 여성 모두 유사하게 외상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이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상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학력과 첫 음주연령으로 학력은 고졸일수록 외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음주 연령이 빠를수록 외상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에 있어 학력과 첫 음주연령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차별적으로 개입을 하기위한 실천적 지식을 적용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 외상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학력,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으로 학력은 고졸일수록 종교는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외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력은 있는 여성이, 재발경험은 있는 여성일수록, 병식은 인정하는 여성이 외상경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에 있어 학력,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의 실천적 함의 및 시사점을 논의,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실태

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외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성의 경우 아동기 성적학대, 친밀한 사람의 자살, 사망, 질병, 가족분리 등에 대한 외상경험이 여성보다 많음이 파악된 바 이러한 내용의 외상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아동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성인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사기, 신체적 방임, 유산 등의 외상경험이 파악된 바 남성 알코올중독자보다 외상경험에 있어 아동기나 성인기 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다양한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유산 등의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관련된 외상경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개입해야 한다.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비교한 결과 여성알코올중독자가 남성 알코올중독자에 비해 외상경험이 기간과 내용에 있어 다양하고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보건 실천 전문가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친밀한 사람의 자살, 사망, 가족분리, 질병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 실천 영역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다루기 위해 남성의 경우 외상경험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력과 첫 음주 연령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 학력이 고졸일수록 외상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입 시 특히 고졸 이하의 남성 알코올중독자가 외상경험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첫 음주 연령 또한 낮을수록 외상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개입 시 첫 음주 연령이 낮은 대상자일 경우 외상경험에 대한 사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과정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여성의 경우 외상경험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력,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 특히 남성 알코올중독자보다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의 요인이 외상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교가 있고, 가족력이 있고, 재발경험이 있고, 병식을 인정하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다루어주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상경험의 내용을 아동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성인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경험(자살, 경제적 곤란, 질병, 사기, 신체적 방임, 유산)의 학대경험을 알아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 범위를 다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외상경험과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의 연관성을 알아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변인들의 다양한 구조적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단계에 따라 외상경험에 대한 경험 내용이 어떠한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A. E. Waldrop, E. J. Santa Ana, M. E. Saladin, M. L. McRae, and K. T. Bardy, "Differences in Early Onset Alcohol Use and Heavy Drinking Among Persons with Childhood and Adulthood Trauma," *J. of Addictions*, Vol.16, pp.439-442, 2007.
- [2] R. R. Funk, M. McDermeit, S. H. Godley, and L. Adams, "Maltreatment Issues by Level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Treatment: The Extent of The Problem at Intake and Relationship to Early Outcomes," *J. of Child Maltreatment*, Vol.8, pp.36-45, 2003.
- [3] C. K. Danielson, A. B. Amstadter, R. E. Dangelmaier, H. S. Resnick, B. E. Saunders, and D. G. Kilpatrick, "Treatment-Related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Chemically Dependent Adolescent," *J. of Psychiatry*, Vol.154, pp.752-757, 2009.



- [4] A. Roy, V. Carli, and M. Sarchiapone, "Resilience Mitigates the Suicide Risk Associated with Childhood Trauma," *J. of Affective Disorders*, Vol.133, pp.591-594, 2011.
- [5] 윤명숙, 박은아,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음주 행위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8권, pp.109-130, 2012.
- [6] H. C. Wilcox, K. R. Conner, and E. D. Caine,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J. of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76, pp.11-19, 2004.
- [7] L. Sher, "Alcoholism and Suicidal Behavior: A Clinical Overview," *J. of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Vol.113, pp.13-22, 2006.
- [8] K. Graham, S. Bernards, R. Knibbe, S. Kairouz, S. Kuntsche, S. C. Wilsnack, T. K. Greenfield, and G. Gmel,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Among Drinkers Around the World," *J. of Addiction*, Vol.106, pp.1391-1405, 2011.
- [9] L. G. McKee, M. O. Bonn-Miller, and R. H. Moos, "Depressive Symptoms, Friend and Partner Relationship," *J. of Alcohol and Drugs*, Vol.72, pp.141-150, 2011.
- [10] C. Colleen and M. S. Youngt, "Autcomes of Mandated Treatment for Women with Histories of Abuse and Co-occurring Disorder," *J.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4, No.2, pp.192-218, 2009.
- [11] R. Kelly, J. J. Wood, L. S. Gonzalez, V. MacDonald, and J. Waterman, "Effects of Mother-son Incest and Positive Perceptions of Sexual Abuse Experienc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linic-referred Men," *J. of Child abuse and Neglect*, Vol.26, No.4, pp.425-442, 2001.
- [12]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 "알코올중독자의 성장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3호, pp.87-115, 2012.
- [13] 우재희,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4] 김연주, *외상과 알코올중독: 경험회피를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5] M. Creamer, P. Burgess, and A. C. McFarlane, "Psychopathology Following Trauma: The Role of Subjective Experience," *J. of Affective Disorders*, Vol.38, No.86, pp.175-182, 2005.
- [16] L. E. Gibson, and H. Leitenberg, "The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nd Stigma on Methods of Coping with Sexual Assault Among Undergraduate Women," *J. of Child Abuse and Neglect*, Vol.25, pp.1343-1361, 2001.
- [17] S. E. Gutierrez and C. Van Puymbroeck, "Childhood and Adult Violence in The Lives of Womenwho Misuse Substances," *J. of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1, pp.497-513, 2006.
- [18] N. L. Howells and A. Rosenbaum, "Effects of Perpetrator and Victim Gender on Negative Outcomes of Family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Vol.23, pp.203-209, 2008.
- [19] S. Martino, R. Collins, P. Ellickson, T. Schell, and D. McCaffrey,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loescents'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 prospective analysis," *J. of Addiction*, Vol.101, pp.971-983, 2006.
- [20] 우재희,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364-375, 2014.
- [21]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11.
- [22] 한은미, *여성알코올 의존자의 외상경험과 부정*

적 정서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저 자 소 개

우 재 희(Jea-Hee Woo)

정회원



▪ 2012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알코올중독문제, 외상경험과 재활